

적발되어 고발조치되고 교통방송 및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된 20개 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은 대체 상수원이 없고 급수 인구가 많으며 오염사고로 급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가적 재난 사태로 악화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국민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팔당호(한강)를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권역 주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수 있도록 유념하시어 통행제한 도로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빔수술법으로 척추종양 제거 시술후 곧 일상생활 복귀

뇌 종양에만 쓰이던 방사선 수술법이 척추 종양에 시도돼 성공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뇌신경센터(소장 황충진 교수)는 광자 빔 수술장비인 노발리스(Novalis)를 이용, 폐 뒤쪽의 척추에 생기는 종양 수술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노발리스 광자 빔 수술장비는 기존의 방사선 수술 장비(감마나이프)와 달리 뇌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른 제한없이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할 수 있다. 이번에 성공한 수술은 1번 흉추 및 요추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피부 표면에 특수구슬(marker)을 부착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이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컴퓨터에 전송한 다음, 방사선을 쬐어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는 방사선이 쬐이는 동안 누워 있으면 되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황교수팀은 “곧 전립선 수술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1/04/12 41면)

암을 극복하자 - 유 방 암 -

“아이 낳아 모유로 정성껏 키운 것도 죄가 됩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은 어느 45세 여성의 울음섞인 푸념이다. 대개 유방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암에 대한 공포와 여성으로서 정체감을 잃

어버린다는 자괴감 때문에 외과적 수술을 극구 마다한다. 결국 비법을 찾아 수소문하다가 이른바 ‘영험하다’는 민간요법의 뒷에 빠져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가슴 전체가 벌겋게 익을 때까지 민간요법에만 매달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현대의학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고 싶다. 의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고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최근엔 유방암 수술이 크게 발달돼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후유증도 감소시키는 유방보존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첨단 방사선 치료술의 발달로 더욱 가능해졌다.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세포가 처음 전이된 림프절만 선택적으로 절제해내는 방법도 있다. 건강한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여성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키며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최소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칼을 대지 않고 자동화된 칼침과 컴퓨터, 초음파, MRI를 활용해 상처와 고통을 줄이면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됐다. 치료효과가 높은 항암제들이 속속 등장해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은 항암화학요법의 길이 보다 넓어졌다.

만일 암세포가 여성호르몬을 먹고 자란 경우라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항호르몬요법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유전자요법도 기대할 수 있다.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선택한다든지, 아예 병든 유전자를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날도 멀잖아 실현될 것이다.

무엇보다 최고의 시술과 치료 예후가 좋기 위해선 조기발견이 전제조건이다. 암을 빨리 발견할수록 수술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암덩이의 크기가 작고 임파절에 전이가 안됐다면 10년이상 생존율이 무려 80%를 넘는다. 물론 완치도 기대할 수 있다. 설령 진행된 유방암일지라도 포기해 금물이다. 최근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들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법으로 치료효과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2001/04/10 18면>

체르노빌 피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서울서 방사능 치료

지난 86년 옛소련에서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 피해 어린이 15명이 23일 국회 의원들의 초청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한·우크라이나 의원 친선 협회(우리측 회장·민주당 김영진 의원) 초청으로 1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국내 종합 병원에서 방사능 피폭에 따른 진료와 치료를 받는다.

특히 어린이들은 28일 영광 원자력 발전소 시설도 견학할 계획이다. 방한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 쿠츠마 대통령의 부인 쿠츠마 류드밀라 여사가 함께 방한, 29일 어린이들과 함께 청와대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를 예방한다.

국회의원들이 체르노빌 원전 피해 어린이들을 한국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98년

20명의 어린이들이 초청돼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1만5000명이 지금까지 방사능 노출 증후군으로 사망했으며 방사능에 노출된 400만명 가운데 25%가 어린이들이므로 알려졌다. 방사능 노출로 우크라이나에는 백혈병, 피부질환 등 각종 질환이 만연하고 방사능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질병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 조찬 기도회와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체르노빌 원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올릴 계획”이라며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은 의원들과 교회 목지자들이 전액 충당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1/03/23 05면>

비행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양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연구결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행기 여행동안 태양이나 우주에서 발생한 방사선에 여행객들이 피폭되는 것에 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항공사와 조종사 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구진들은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주 방사선이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방 항공 본부의 항공의학연구소의 방사선 생물학부 책임자인 Wallace Friedberg는 비행동안 피폭되는 방사선 양이 걱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비행동안의 위험도가 차 운전때보다 적으며 다른 활동을 할 때 건강을 위협을 주는 것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비행기 여행객의 수가 매년 수백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왔었다. 조종사, 승무원들에 대해 항공 시간과 암, 백혈병등의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몇 개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방사선 연구자인 Gary Butler는 이 연구결과들은 불확실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사들의 경우 우주 방사선에 대해 주의를 요하기는 하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만성적인 피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비행 승무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양 제한치를 수정할 연구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도 1996년에 비행 승무원들에 대한 최대 방사선 피폭양을 가슴 X-선 촬영을 67번 할 때의 양과 비슷한 수치로 제한하고 있다. 임신부의 경우 방사선이 세포를 파괴할 가능성이 더 높아 이보다 더 낮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항공당국은 한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럽 연합의 연간 한계치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이 보다는 훨씬 낮다고 한다. [출처 : <http://www.iht.com:80/articles/14108.htm>; 2001/03/24]